

제59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7월 18일)

## 한국 회화의 제작

천주현 | 201호 서화1실 | 18:00~18:30

### □ 회화의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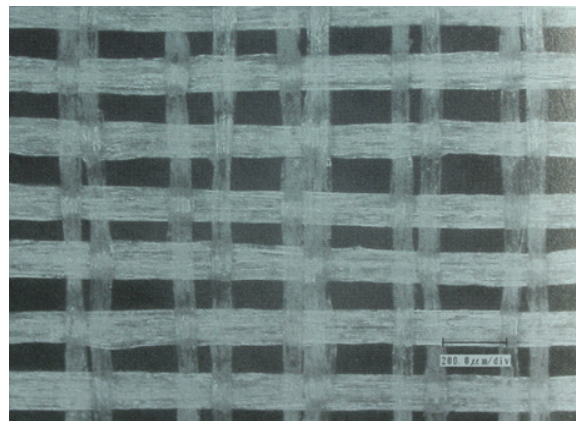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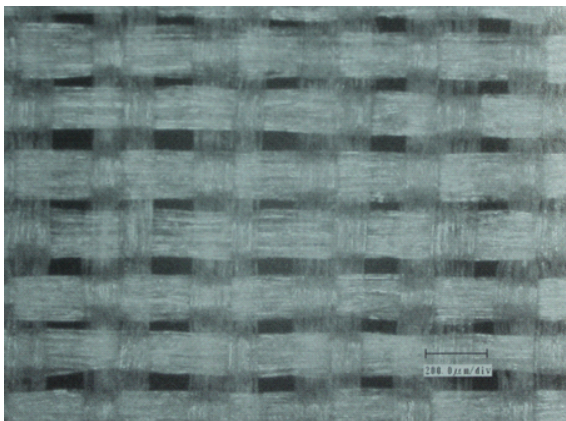
- 바탕재료: 동물성 재료(견), 식물성 재료(종이, 마 등)
- 접착재료: 아교阿膠, 어교魚膠
- 채색재료: 광물성 안료, 식물성 안료, 근대 합성안료

### □ 건본회화絹本繪畫의 특징

-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얇고 유연하며 높은 투명도로 뒷면채색 즉 배채背彩가 용이하다.
- 보존성이 나쁘다.

### □ 회화의 제작(예: 건본)

- 초본草本제작: 유지油紙초본
- 상초上綃: 화견 직조 → 화견의 백반처리 → 초본그리기[上綃移模]
- 채색[設彩]: 배채 → 전채
- 후배後裱: 모면지毛面紙, 박백지薄白紙, 설화지雪花紙
- 장황粧纁



## 신석기인의 생활

윤지연 | 102호 신석기실 | 18:00~18:30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강변, 해안 등 물과 가까운 곳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해 나갔으며 이른 시기부터 간석기와 토기를 제작하였다. 신석기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수렵·채집 생활이 이루어졌다. 신석기인은 굴이나 조개, 물고기를 잡고 도토리 같은 열매를 채집하며 사슴, 멧돼지 등을 사냥하는 다양한 생업 활동을 하였다. 특히 식량이 부족한 겨울부터 이른 봄에는 주로 굴을 해안가에서 채집하여 식량과 단백질원으로 이용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여러 크고 작은 조개무덤이 형성되었다.

신석기시대 중·후기가 되면 수렵·채집에 더하여 식물 자원을 재배하는 생활 방식이 나타난다. 돌낫과 땅을 파는 도구, 식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갈판과 갈돌 등 다양한 도구가 활발히 이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비해 식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른 시기부터 도토리와 함께 활발히 채집되었던 조가 중·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신석기시대 전반에 걸친 주요 식물 자원이 되었다.

온전히 사냥과 채집으로 삶을 영위해 나갔던 구석기시대와 달리 신석기시대에는 자원 활용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식물 재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자연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석기시대에 시작된 초보적인 단계의 식물 재배는 이후 청동기시대의 본격적인 농경으로 이어진다.



그림1. 갈판과 갈돌



그림2. 이음낫시 허리와 바늘

## 여수반도에서 출토된 청동검

최정아 | 103호 고조선실 | 19:00~19:30

순천시에서 남쪽으로 뻗어 바다로 돌출된 여수반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해안의 풍경이 아름답다. 또 지형적으로 항구가 발달되기 좋고 남해안의 중앙에 위치해 예부터 중요한 교통로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여수반도는 청동기시대 남해안의 주요 거점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축조되어 현재까지 217군 1,722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고, 이 중 700여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고인돌 대부분은 무리를 이루며, 길게 열을 지어 배치되기도 하였다. 겨문거리로는 청동무기, 돌칼, 돌도끼, 옥 등 발견되었다.

주목할 것은 비파형동검이 이 지역에서만 17점(재가공된 청동검 1점 포함)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 비파와 닮은 이 청동검은 주로 중국 요령지방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여수반도에서는 적량동 상적 고인돌·오림동 고인돌·월내동 상촌 고인돌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도 여러 점 발견되었다. 이 중 월내동 상촌 116호 고인돌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길이 43.2cm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것 중 가장 길다.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채 발견된 경우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부러트린 부장의례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 밖에 평여동 산본 고인돌에서는 비파형동검으로 추정되는 청동검과 함께 환옥·소옥·곡옥·관옥 등 모두 431점의 옥이 출토되었다.



여수 월내동 상촌 고인돌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

청동기시대의 여수반도에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정치체가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거대한 돌을 옮겨 고인돌을 만들 정도로 풍부한 노동력과 힘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나 옥 같은 위세품을 자체 제작하였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주변지역에서 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교역망을 갖추었을 것이다. 비록 한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하였지만, 해상로를 이용하여 동서를 연결하며 성장한 집단이 여수반도의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 소장품의 안전한 전시

김중우 | 301호 불교조각실 | 19:00~19:30

전시실에서는 많은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품의 장식기법이나 세심한 문양 등 관심분야의 특징들을 열심히 관찰을 하시는 데요,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전시된 유물에도 일반 관람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시품의 안전한 고정 작업입니다.

전시품을 더욱 돋보이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조명, 디스플레이, 받침대 색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품의 안전입니다. 특히 근래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자연재해(지진)나 외부 환경적 요인들은 전시된 전시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안전은 전시품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중요 사항입니다.

전시품의 고정은 유물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고정시킵니다. 받침대 위의 평면적인 고정방법, 공중에 띄워 고정시키는 방법, 벽면을 이용한 고정방법 등 전시의 성격과 이미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고정작업이 진행됩니다. 전시품을 고정하는 재료로는 금속, 아크릴, 낚시줄, 실리콘 튜브, 실리콘 패드, 뮤지엄웍스, 발포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전시품과 상호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전시품을 안전하게 고정시킵니다. 크기가 작은 전시품의 경우, 형태에 맞추어 금속 마운트를 제작하여 전시에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면진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1. 마운트 고정 모습(벼루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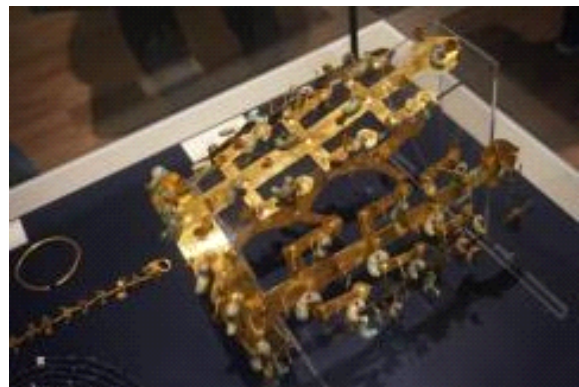


그림2. 아크릴 받침대 모습(금관)